

IV 전국대회 대상 수상작

외교부장관상 서울신서초등학교 1학년 김준후

1a.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 아크타에게
부모님과 함께 편지를 작성 후,
제출하면 100원이 후원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 한국 또는 YouTube에서 미나의 영상을 시청한 후 희망의 편지를 작성해주세요.
1-2학년 친구들은 그림편지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미나에게,
미나야 안녕,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여덟살 김준후라고 해,
나는 너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많은 궁금한 점이
생겼어, 먼저 나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무수히 살며
살고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많은 책과 영
을 찾아 보았어, 그 후 담배 공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너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도 심각한
미세 먼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너는 몸이 아주 큰 병에
생길수도 있는 담배 가루를 매일 마시며
일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미나야!
나는 책 중에서 위인전을 가장 좋아하는데 책을
읽어 보면 너처럼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이야기가
 많아, 너도 희망을 잃지 말고 꼭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래, 내 꿈은 어려운 사랑을 나누는
작사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린이 된 만큼 꿈을 이뤄
만나게 된다면 내가 미나가 일하는 학교
로 조금씩 많이 들고 싶어 할게, 그럼 안녕!

2019년 3월 31일
from, 신서초등학교 1학년 나 반 이름: 김준후

외교부장관상 반곡초등학교 6학년 김수민

1a.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 아크타에게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 한국 또는 YouTube에서 미나의 영상을 시청한 후 희망의 편지를 작성해주세요.
1-2학년 친구들은 그림편지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안녕? 미나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아시아 동쪽에 있는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
그래서 날씨는 많이 훈지 않고 새싹이 올라와 있어
나는 13살이고 초등학교 6학년인 김수민이라고 해 너는 4살 많은 언니야
아리아이인 내가 담배공장에서 8시간씩 일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
어떻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봐 편지를 쓰게 되었고
내가 예전에 태권도를 배울 때 같이 너도 함께서 같이 운동 할 때가 많았어
운동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틈틈이 태권도를 배워볼게
너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도 어딘가에서 생애도 꼭 이루고 싶어서
지금 너의 생활이 어떨까가 궁금해 한다면 너도 편지 써서
지켜봐 줘
미나야, 혹시 너를 좋아하니?
나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
시를 쓰면 상상 속에서 재미있는 것을 마음껏 만들어 낼 수 있고
속았했던 마음도 글에 사라져
그래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나의 마음을 글로 풀어내
너도 여간공방에서 배운 글씨로 나의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어때?
시를 쓰다보면 힘든 일도 잠시 잊고 상상속 시간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거야
우리들의 상상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으니까

너의 꿈처럼 나의 꿈도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을 꿈꿔 왔어 4학년때 꿈의인생을 만났기 때문이었어
선생님은 우리들이 장난을 쳐도 큰 소리도 야단치지 않고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꿈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누구의 꿈도 응원해주었어
너도 지금처럼 야간공방에서 노력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거야
양육에 있는 너를 편안하게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편지를 하게 되었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저런 행복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너를 기억하면서 너의 좋은 시간을 새겨줄 수 있게 응원할게
너와 나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꿈이 같은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 꼭 만나자

희망의 꽃길은 곧이며
(김수민)
세워진 구름이 푸른 하늘 도화지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어
길 잃은 들머리에겐 길잡이를
꽃들에게는 아름다운 조성을
너도나도 구름의 꿈을 좋아해요

구석진 곳에 있는 꽃들이
그림 그려달라고 열정을 부렸지만
구름은 도화지 보지 못해요
그래도 꽃들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꽃길은 꾸미고 있어

2019년 3월 11일
from, 반곡초등학교 6학년 3반 이름: 김수민

from: 정승연 / 민락 학교 3학년 5반 이름: 조승기

from, 서울초등학교 학교 3 학년 1 반 이름: 홍예지

여성가족부장관상 신영초등학교 5학년 김지율

내가 뭐 미나, 난 미나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김지율이라고 해. 내가 왜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냐고? 왜냐하면 희망편지는 어떤 사람
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새싹을 심어
줄 수 있으니까 말야.

미나야, 난 내 편지가 너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고 있어.

네가 내 편지를 받고 행복해지길 기원하며
지금부터 내가 널 조금 알게 된 날부터
내가 할게.

얼마전 선생님께서 TV로 내가 밀하고
있는 곳을 보여주셨어. 적박한 환경에서
미세한 영배가족을 미시며 일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의 건강이 정말 염려되었어.
가정생활을 하면 폐에
아름이 생길 수도 없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꿈은 잃지 않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하루에
내 생각에 너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는 매일 해야 하는 공부부터
왜하는 것도 버거운데 말야. 만약 내가
네 처지에 있다면 그냥 집에 가서
쉬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참 대단한
아이 생애 활동해. 나는 하루 바리 줄은 환경에
서 고된 일 대신 너가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면 나는 9살에 세상물정을
모든 어린이가 나처럼 투정을 부리고
공부를 하며 산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내가 느끼는 환경과 물질들이 아주
하지만 희망 편지를 쓰면서 지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나야! 너 꿈이 선생님이라고 했지?
왜냐하면 나는 너처럼 고된 노동 뒤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를

2019년 9월 18일
신영초등학교 5학년 김지율

본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말고 늘
노력하렴.

내 꿈은 작가와 건축가야. 내가 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희망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건축가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싶어.
내가 작가 겸 건축가가 되었을 때쯤
너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있겠지?
그날 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힘껏
달리자. 그래서 우리 각자의 꿈을 이루고
언젠가 꼭 한번 만나자.
그날 까지 하이팅~♡